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출범, 농어촌 정책 논의 본격화

- 제28차 농어촌분과위원회 개최 및 제7기 위원 위촉
- 농어촌 정책 거버넌스 필요성 및 농어촌분과위원회 역할 강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농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농어촌분과위는 2019년 출범 이후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어촌 돌봄서비스 개선,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마련 등 농어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촌·산촌·어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이다. 분과위원장으로서는 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농어촌분과위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력과 정책 연계가 가능한 의제 선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농어촌 읍면자치 강화 방안, 농정 거버넌스 복원, 농어촌 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주제가 제시되었다. 향후 의견을 종합하여 논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산어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농어촌 정책은 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간 정책이 연계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분과위원회가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사무관	이서윤 (02-6260-1225)

구분	소속	직위/직책	성명	비고
1	(재)지역재단	이사장	허헌중	* 분과위원장
2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소장	구자인	
3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	김대헌	
4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향숙	
5	청년농업인정책핫라인	단장	김후주	
6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송원규	
7	전국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회장	이규정	
8	전라남도의회	의원	이규현	
9	강원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이병훈	
10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이진희	
11	충남경제진흥원 충남농촌활성화센터	센터장	정석호	
12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	
13	마을기업 승곡체험휴양마을	대표	조원희	
14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무총장	최성준	
15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	회장	표재욱	
16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하승수	
17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한승아	
1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	박성우	
19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정책관	박승준	
20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하태선	

※ 위원명단 ‘가나다’ 순